

수도권, 3일째 일평균 500명 ↑ ...새 거리두기로도 '5인 금지'

젊은층·감염재생산지수 1.24...델타 변이 위협도 이달 7일 전까지 '새 체계 3단계로 격상·추가 유예'

닷새째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일주일 유예한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째 500명을 초과하면서 새 거리 두기 체계로도 3단계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거리 두기를 적용하더라도 '예외 없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기존 거리 두기 체계와 비슷하거나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43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286명, 경기 227명, 인천 28명 등 수도권에서 전국 확진자의 81.7%인 541명이 집중됐다.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631명→606명→619명→614명 등 600명대였던 수도권에선 검사량이 감소하는 주말 영향에도 500명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나올 연속 매일 600명 이상 확인된 건 3차 유행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일 이후 6개월여(183일) 만에 처음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일 508.9명, 3일 531.3명, 4일 546.1명으로 3일째 500명을 초과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3번째 개편안상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한다. 새 체계에서 수도권 지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5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상향한다. 확진자 수 이외 다른 방역 지표도 좋지 않다.

감염자 1명당 2차 확진자 평균으로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27~7월1일 수도권에서 1.24로 집계됐다. 전국 1.20보다 높은 수치로, 1.2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지역마다 고르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항체가 형성돼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한다.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펌,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은 물론 학원까지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사례인 서울 마포구 음식점(홍대 펌)·경기 영어학원 집단감염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01명으로 300명을 넘었다. 홍대 펌 관련 59명 외에 원어민 강사들을 고리로 수도권 소재 영어학원 8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집단감염에선 최소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는 알파

(영국)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입원율은 2.26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남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래 역대 두번째로 많은 81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보고됐다. 지난해 7월25일 0시 기준 86명 이후 최대 규모로 델타 변이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 39명 등이 다수 확진됐다.

새 거리 두기 체계 시행을 일주일 뒤로 미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유예 기한인 이달 7일 전까지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 유행 상황이 지금과 같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선택지는 ▲현행(구) 거리 두기 유예(새 거리 두기 시행 재연기) ▲새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등 2가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분은 강화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직계가



족 모임은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했지만 새 체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예외로 두는 돌잔치 16명까지 허용 예외도 3단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49인까지만 모임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해제되지만 식당·카페 등 취식, 실내체육시설·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물론 7일까지 유예한 새 거리 두기 적용을 추가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현재 수도권 유행의 한 축인 클럽 등 유흥시설의 경우 기존 거리 두기 체계에선 집합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새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 기존 방역 조치 추가 유예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거리두기 아직 지켜야합니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주류박람회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숨진 어머니 다리 밑 유기 60대 아들 검거, 불구속 입건

숨진 어머니를 다리 밑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4일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30분께 곡성군 고달면의 다리 밑에 어머니(93)의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숨지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조업정지

방지시설 없이 몰래 오염물질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전남도는 여수시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주) 여수1공장이 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되어 조업정지 10일의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특정 공장에 조업정지 10일

의 행정처분 명령을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전남도는 9~10일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 대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오염물질 공기희석 배출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적발사항을 보면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 초과 배출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이 가능한 불법 '가지 배출관'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방지시설



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장 생산 시설에서 세정폐수를 배출하면서 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으며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양 술집서 흥기에 찢린 3명 중 1명 숨져

전남 광양의 한 술집에서 남성 3명이 흥기에 찢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명은 중상이며 1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46분께 광양시 중동 한 술집에서 A(47)씨와 B(38)씨, C(37)

씨 등 3명이 흥기에 찢린 뒤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으며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0대 남성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흥기를 이용해 B씨와 C씨를 찢은 뒤 자해를 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심종섭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